

탁재훈 3년만에 방송 복귀 “고민도 많고 부담도 크다”

케이블채널 엠넷 ‘음악의 신’ 시즌2 출연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 가면 너그럽게 봐주시지 않을까요.”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로 활동을 전면 중단했던 가수 탁재훈(사진)이 3년 만에 방송에 복귀하며 “부끄럽다”며 팬들에게 사과했다. 3월 중순 인터넷을 통해 먼저 공개하는 케이블채널 엠넷 ‘음악의 신’ 시즌2를 통해 연예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그의 목소리는 애써 답답한 듯 들렸다.

22일 전화로 만난 탁재훈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올해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지낼 예정이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다만 팬들이 원한다면, 자신을 찾아주는 곳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자”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기는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바람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았다. 그는 “3년 동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팬들 앞에 서서 “잘못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싶었다는 말이 이어졌다.

방송 복귀를 앞두고 “만감이 교차한다”며 “(대중이)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도 많고 부담이 크다”면서 잠시 상기된 표정인 듯한 탁재훈은 “다시 한 번 시작해 보라며 응원과 용기를 주던 주위의 사람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고 싶다”고 다짐했다. 또 한 마디 할 마다 조심스럽지만 특유의 유머러스함을 내보이며 “3년 동안 예능프로그램을 보지 않았지만 감을 잃지 않았다고 자신한다. 편안한 웃음으로 웃음을 주고 싶다. 그제 나의 몫이다”고 강조했다.

탁재훈은 “모든 비난은 내가 짊어지고 갈 짐”이라면서 “때론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는 것보다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진정성을 알아봐주실 거라 믿는다”며 지켜봐 달라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스테이션

선·정혜영 부부, 위기가정 아동교육비 1억 기부
선·정혜영 부부가 22일 홀트아동복지회를 방문, 위기가정 아동교육비 지원프로그램인 ‘2016 꿈과 희망 지원금’으로 써달라며 1억 원을 전달했다. 선·정혜영 부부는 8년째 매년 1억원을 기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대학생 장학금 지원 등 총 12억원을 후원했다. 이번 전달식은 두 사람이 올해로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로 활동한지 10주년이 되면서 의미를 더했다. 홀트아동복지회의 이 프로그램은 선·정혜영 부부의 기부로 시작됐으며, 현재 300명 아동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박해진, ‘치즈 인 더 트랩’ 중국 홍보활동

연기자 박해진이 3월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영상사이트 유쿠의 ‘2016 브랜드 전략 발표회’에 한국배우로는 유일하게 초청됐다. 박해진은 이날 자신이 출연중인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치즈 인 더 트랩’의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치즈 인 더 트랩’은 유쿠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돼 화제를 낳았다. 이에 드라마의 성공적인 중국 론칭을 위해 박해진이 초청됐다.

MBC 신정수·강궁·문경태 예능PD 사표 중국행

MBC의 인기 예능프로그램을 연출했던 PD들이 대거 사표를 제출하고 중국으로 떠난다. 방송가에 따르면 예능국 신정수, 강궁, 문경태 PD가 22일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들은 현재 중국 후난 위성TV 예능프로그램 ‘폭풍표지’ 총연출을 맡은 김영희 전 MBC 예능국PD가 설립한 중국 콘텐츠 회사에 소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수PD는 “나는 가수다”를 연출했고, 강궁PD는 ‘우리 결혼했어요’, 문경태PD는 ‘나 혼자 산다’와 ‘진짜 사나이’ 등을 연출했다.

앱스토어 게임 매출 랭킹

2월 22일 기준

순위	게임명	서비스사
1	모두의 마블 for kakao	Netmarble Games
2	더 킹 오브 파이터즈 '98 UM	FingerTips
3	FIFA ONLINE 3M	NEXON Company
4	세븐나이츠 for Kakao	Netmarble Games
5	히트	NEXON Company
6	뮤오리진	Webzen Inc.
7	프렌즈팝 for Kakao	Webzen Inc.
8	사머너즈 워: 천궁의 아레나	Com2uS Corp.
9	클래시 오브 클랜	Supercell
10	별이 되어라! for kakao	GAMEVIL Inc.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극장가 ‘로맨스’ 열풍 이끄는 3인3색

- ‘사랑’에 빠진 남자들

남자들이 사랑에 빠졌다. 처음 경험한 감정에 속앓이를 하고, 금지된 관계에 기꺼이 마음을 내던진다. 느끼는 감정도, 관계 맺는 방식도 저마다 다르지만 사랑을 향해 두려움 없이 직진하는 모습만은 같다. 공유(37)와 유아인(30) 그리고 도경수(23)의 사랑이다. 이해리 기자 gofi1024@donga.com

●영화 ‘남과 여’의 다정한 공유

한 눈에 빠져든 사랑

공유는 25일 선보이는 영화 ‘남과 여’(감독 이윤기·제작 영화사 봄)를 통해 사랑에 빠진 남자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준다. 밀어를 속삭이지 않아도 다정한 눈빛과 미소만으로 그 감정의 깊이가 드러난다.

공유의 사랑은 세상이 쉽게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영화는 그 현실을 비껴가려 한다. 사람을 만나 첫 눈에 빠져들 수 있는 감정이

곧 사랑임을 말한다.

멜로의 주인공이 되는 건 공유에게도 행운이었다. 그는 “배우로서 가졌던 아쉬움을 채워준 영화”라며 반겼다. 사랑의 감정으로 흔들리면서도 일상에 변화가 없는 극중 공유의 모습은 실제 그와도 닮았다. “사랑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라는 그는 “평범하고 소박한 사랑을” 해왔다.



●영화 ‘순정’의 순수한 도경수

눈물나는 아픈 사랑

첫사랑은 이뤄지기 어렵고 대부분 아픈 기억으로 남는다는 ‘통념’은 24일 개봉하는 ‘순정’(감독 이은희·제작 주피터필름)의 도경수를 통해 다시 확인된다. 하지만 간과하면 안 되는 것, 첫사랑은 아련함을 더한 ‘눈물’을 동반한다는 사실이다.

실제 도경수가 겪은 첫사랑의 기억도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 “우울하고 슬픈 기억”이다. 감정 조절이 어려워 ‘집착’도 했다.

사랑 앞에서 마음 졸여본 도경수의 경험은 ‘순정’이 관객에게 전하는 감성을 더욱 풍부하게 해줬다. 그리고 이 ‘서사가 있는 사랑’은 “평생 지켜줄 테니, 걱정 말라”고 말하는 대사로부터 관객의 눈물을 핑 돌게 한다.



●영화 ‘좋아해줘’의 저돌형 유아인

책임지는 사랑

재벌 3세(‘베레랑’), 죽어가던 세자(‘사도’), 유아인은 멈추는 방법을 모르는 것처럼 질주했다. 사랑도 그렇다. 상영 중인 ‘좋아해줘’(감독 박현진·제작 리앙필름)의 유아인은 오래 연모해온 여인에게 품은 연정을 애써 감추며 저돌적으로 달려든다. 그래서 부딪히기 일쑤다.

사랑에는 미숙한 정준이지만 책임감은 누구보다 강하다. 덕분에 세 커플의 사랑이 교차하는 극중에서 유아인은 단연 돋보인다. 나

이차, 사회적 위치, 타인의 시선 따위 문제없다는 듯 오직 사랑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여성 관객을 사로잡기 충분하다.

실제로도 유아인은 ‘연애 고수’라는 시선을 받는다. 과거 몇몇 인터뷰에서 “여자친구는 항상 있었고, 여자를 리드하는 편”이라고 했던 고백이 발단이었던. 물론 이성친구도 많다. 배우 정유미와는 시사회 때 손을 잡고 나설 만큼 마음 표현에 거리낌이 없다.



송혜교 “대본 떨면서 봤다…다음 회가 계속 궁금해지더라”

KBS 2TV ‘태양의 후예’ 24일 첫 방송

연기자 송혜교와 송중기가 각기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오랜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온다. 송혜교는 일부 대중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하고, 송중기는 본격적인 연기자로서 시청자에게 가까워질 기회로 활용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안고 있다.

그 무대는 24일 첫 방송하는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다. 온전한 사전 제작으로 지난달 6개월간의 촬영을 마친 송혜교와 송중기는 오랜 침묵을 깨고 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 무대에 섰다. 작품의 제작 소식이 알려지고부터 일거수일투족이 주목을 받은 뒤였다.

지난해 5월 현역 만기 제대한 송중기는

“병장 징급 2개월 때” 대본을 처음 접했다. 그는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며 드라마에 강한 애정을 드러냈다. 송혜교도 “대본을 떨면서 봤다. 다음 회가 계속 궁금해지더라”며 출연 배경을 밝혔다.

송중기는 KBS 2TV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 이후 4년, 송혜교는 SBS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이후 3년 만이다. 2014년 송혜교는 수십억원대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의혹에 휩싸여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송혜교는 “촬영하고 공개하기까지 시간이 길었다”며 “배운 것도,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 보완해야 할 점을 깨달은 현장이었다”고 돌아봤다. 한창 촬영 도중 액션연기를 소화하다 부상을 당한 송중기는 “제대 후 첫 복귀작, 130억원 규모 제작비의 대작이라는 데 부담감이 있을 줄 알았지만 그렇

지는 않았다”며 “군 생활하면서 의연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태양의 후예’는 이들의 출연 외에도 중국 동영상 사이트에 동시 방영하는 국내 첫 드라마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송중기는 “드라마 제작사나 방송사 관계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우리 드라마가 출발점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다”고 책임감을 드러냈다. 연출자 이은복 PD는 “김은숙·김원석 작가의 글과 사전제작이 가능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자신했다.

‘태양의 후예’는 낯선 땅에 파병된 군인과 의사들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이어가는 사람 이야기를 그리는 휴먼 멜로드라마로, 영화 투자배급사인 NEW의 첫 번째 드라마 진출작이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욕설 파문’ 이태임·예원, 화해의 만남 가질까

이태임 이어 예원도 연예활동 재개

“한 번 만나니 해야 하는데…”

욕설 파문의 두 당사자였던 이태임과 예원이 차례로 활동에 복귀하면서 ‘화해의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태임이 작년 12월 드라마 ‘유일담미’로 활동을 재개하고 현재 케이블채널 tvN 예능 프로그램 ‘우리할매’에 출연하고 있다. 예원도 27일 첫 방송하는 tvN ‘SNL코리아7’에 고

정출연자로 합류하며 연예활동을 재개한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만남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태임과 예원은 지난해 욕설 파문 이후 현재까지 얼굴을 마주한 적은 없다. 이태임이 작년 11월 ‘SNL코리아6’ 출연을 결정하면서 예원에게 동반 출연 의사를 물었지만 예원 측은 고사했다. 그러나 이태임이 ‘SNL코리아’에서 사과하는 모습을 본 예원이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태임은 전화를 걸어 “술 한 잔 하자”

는 이야기를 나눴다. 이태임의 동반 출연을 거절했던 예원은 언제가 이태임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 만남이 ‘화해’를 상징하는 의미가 될 수 있지만, 반면 진정성 없이 복귀를 위한 작위적인 ‘제스처’로 비춰질까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태임과 ‘화해의 만남’ 없이 활동에 나서려니 불편한 마음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예원 소속사 스타제국 측은 “그동안 만나려고 한 적이 몇 차례 있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면서 “이제 예원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경 기자 gymmy@donga.com



이태임

예원